

한우

## 미경산 한우암소 비육으로 두수 조절

한우협회 회장단회의서 암소 도축 효과 대안으로 제시

한우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어서며 두수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경산 암소비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지난 8월 21일 대전 우성사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자구책으로 미경산 암소비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홍길 대구경북도지회장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미경산 한우암소 비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한우 사육두수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화우 미경산 암소 비육 브랜드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화우의 사육두수가 진폭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에서도 한우암소에 대해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고 비육하는 미경산 암소 비육이 일정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남배 회장도 미경산 한우암소 비육이 한우 사육 두수 조절에 일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미경산 암소 비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경산 암소 비

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선제적 대책 요구안 등 추진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대해서는 전국한우협회에서 당연히 승인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 11회 한우인의 날 행사는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충주시 탄금대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거듭 확인했다.

라이브뉴스 박동신 기자 2012. 08. 22

양돈

## 정부, 돈육업체에 한EU FTA 무역피해 첫 인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예정. 유사신청 이어질 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첫 판정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8월 22일 30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 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 FTA 체결 이후,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국내산 ↓ EU산 ↑**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 상반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청은 판정했다. 위원회는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돼지고기 포장육의 시장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이 84.76%에서 70.98%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EU산은 5.65%에서 12.22%로 상승했다.

**\* 지정업체, 연간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 30억  
이내 용자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용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7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기준이 매출액 또는 생산량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대폭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억(거치기간 포함 5년), 시설자금 연간 30억(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에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천만원 한도로 지원 받는다.

**\* FTA 피해업체 유사 사례 이어질 듯**

지식경제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사를 조만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판단은 한·EU FTA에 대한 무역조정 신청의 첫 결론이며 지난달 무역조정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FTA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업체의 유사한 신청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와인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복분자주 업체를 비롯해 한·EU FTA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신청 3건을 더 심사 중이다.



**부화장 사업확대,  
채란농가 ‘뿔났다’**

산란계부화업체가 대규모 농장을 건립하고 채란업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대해 채란농가가 강하게 반발하며 부화업체가 계란 수급조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한국양계TS, 양지부화장 등 산란계 부화업체나 개인 사업자들이 30만~40만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산란계 농가들은 산란계 산업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영세규모 농가에선 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산란계 산업과 상생해야 할 부화업체가 산란계 산업에 대규모로 뛰어드는 것은 불황을 심화시키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8월 21일 경기 이천시 한국양계TS 본사 앞과 경기 용인시 조인(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화업체의 산란계 산업 진출 자제와 산란계 수급조절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농가들은 “부화업체가 농가의 경영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쫓아 채란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은 산란농가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채란사업 진출을 철회하고 본업인 부화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조인측은 당분간 산란농장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한국양계TS는 김윤호 한국양계TS 대표의 가족이 하는 농장은 한국양계TS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윤호 대표는 “한양TS는 산란계 사업에 진출하지 않았고 누이가 추진하려는 산란계 사업에 지분참여도 하지않아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사안이 급박하더라도 방역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종계장 앞에서 전국 각지의 양계인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편 부화업계는 양계협회측에서 요구하는 수급조절대책에 전반적으로 동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추진 중인 산란노계 렌더링 사업계획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부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계협회에서 부화업체측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을 부화업계에서 부담토록 통보했다”며 “수급조절 등 산란업계의 불황을 타개키 위해 종계쿼터제 등에는 적극 동참하겠지만 렌더링 사업계획 만큼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교문 조인(주) 축산본부장도 “농장 확대 자제나 종계 쿼터제 문제 등에 동의하고 업계의 불황타개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지만 지금의 불황이 전적으로 부화업계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지난해 할당관세로 실용계 180만마리가 수입된 것이 산란계 마릿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대군 사양가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만큼 부화업체와 산란농가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 기자 2012. 08. 22

## 농경

### 젓소 수송아지 1만원에도 거래 ‘뚝’ 육우농가 불안감 팽배

농협 조사 전국평균가 4만원대...  
현장선 1~2만원, 수요도 없어

불투명한 미래 사육포기 속출...사료값 폭등 예고에  
전업 고려도

지난 8월16일 육우 2등급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만289원이었다. 한우 거세우 2등급 1만1천765원과 불과 1천476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평균가격 7천66원에 비해 45%나 상승했다. 이처럼 도매시장 가격만을 놓고 볼 때 육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육우농가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육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내년 사료값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아예 한우로 전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젓소 수송아지 가격이 또 다시 1만원에도 거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거래가는 4만원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만~2만원대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현상은 육우 사육을 아예 포기하고 사육 중인 육우를 몽땅 매물로 내놓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농가들이 나오다 보니 4개월짜리 송아지 가격이 30~4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 송아지 수요는 더 줄어들어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분명 육우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밀소인 송아지 가격이 싸다는 것은 육우농가 입장에서는 호재일수도 있지만 육우 사육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 사료값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생산비 중 사료값 비중이 높은 육우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 송아지 가격이 싸더라도 사료값이 오르면 손해 볼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선부르게 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육우자조금준비위원회가 육우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육우농가들을 조사한 결과 30%가 육우사육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우 전업을 고려하는 등 예비 포기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 최현주 육우분과위원장은 “최근 육우 농가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송아지 가격이 1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것은 한우로 전업하는 등 육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2.08.20



## 예천서 양봉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예천군은 지난 8월 16일 문화회관에서 2012 예천군충바이오엑스포의 붐 조성과 예천군 꿀벌육종센터의 현황 소개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12 양봉산업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가졌다. (사)한국양봉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양봉학자와 한국양봉협회 회원 400여 명이 참가, 꿀벌사양기술과 꿀벌질병관리, FTA시대의 양봉산업의 전략, 2015 세계양봉대회의 성공

적인 한국개최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심포지엄 다음날은 양봉협회 회원 모두가 예천군 곤충연구소 꿀벌육종센터를 견학하고 현장에서 꿀벌 우수 품종 개발 연구현황과 예천군꿀벌육종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 및 심포지엄 수료식을 가진 후 오후에는 '2012 예천군충바이오엑스포'를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FTA시대 국내 양봉인의 대응방안으로 양봉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양봉기술R&D연구 강화, 기존제품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기능성 꿀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우건석 교수는 '세계양봉대회'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봉대회에서 많은 양봉인의 참여, 우수한 양봉기구 및 고품질의 양봉산물의 전시를 역설했다.

동남아시아의 양봉산업 현황(아시아 양봉대회 위원장 왕시리), 꿀벌 바이러스 질병관리(경기대 윤병수 교수), 흑등 말벌의 대처방안(안동대 정철의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경북매일 정안진 기자 2012.08.17



올해 우수사슴선발대회 대상의 영광은 만년사슴목장 전규현씨에게 돌아갔다.

한국양록협회(회장 정유환)는 지난 7월 24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2012 우수사슴선발대회 현장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전국에서 최고 사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전한 92두가 경합을 벌인 결과 충남 공주 만년사슴목장(대표 전규현)이 대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생산량부문=송암사슴목장(대표 서종구) ▲각관분지부문=두암사슴목장(대표 남상택) ▲상대비율부문=대추곶사슴목장(대표 신현호) ▲녹용외관부문=금소사슴목장(대표 임규원) ▲종합평점부문=신흥사슴목장(대표 강준수)이 각각 수상했다.

정유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수사슴선발대회는 출전규정이 까다로운 만큼 수상여부에 관계 없이 출전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수사슴 임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좋은 사슴을 키워 우수한 녹용을 생산한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 모두는 상금을 양록협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2. 08. 07



**‘2012 우수사슴선발대회’  
92두 경합 결과,  
충남 만년사슴목장  
대상 영예**